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후반기 부의장 후보 누가 뛰나?

김이재 · 김희수 · 이명연 의원 등 3명 거론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도의장 선거와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6월 26일 도의장 선거를 치르고, 부의장 선거는 27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부의장에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은 김이재 의원(전주 4), 김희수 의원(전주 6)과 이명연 의원(전주 10)(가나다 순)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은 의원을 상대로 정중동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의장 선거에 나서는 김이재 의원은 여성 재선의원으로 지역구가 서신동이다.

12대 전반기에 행정자치 위원장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의회에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조선대학교 산업미술과 학사졸업 후 원광대 미술대학원에서 섬유미술 전공으로 미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원광보건전문대와 중앙대에서 15년간 학생들을 지도했다.

또한, 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전북관광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재임중 활발한 활동으로 정부로부터 2016년 동탑산업훈장의 수훈을 받기도 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 청렴한 의원 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과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특위 위원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전주 6선거구 의원으로 지역구가 효자동으로 지역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하다.

재선의원으로 전주대학교 졸업 후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김이재 의원



김희수 의원



이명연 의원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활동하는 노력하는 의원을 구현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구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또한, 탁월한 친화력으로 지역구를 막론하고 도민 누구나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으로 주위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인권위원장 겸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부위원장, 전주대 동창회 부회장, 풍남로타리 회장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등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전북 발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전주 10선거구 의원으로 지역구가 우아1~2동과 호성동이다.

해성고 졸업 후 원광대 행정학과와 전북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를 석사 졸업했다.

전주시의원 4선을 거친 후 도의원으로 11대와 12대에 걸쳐 연속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전주시의원으로서 7대부터 10대까지 내리 4선을 하는 동안 전주시의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9대 후반 기 의장에 선출돼 전주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구에서 어느 누구와도 소통을 하는 친화력으로 주위에서 자신을 위해 도와주는 지인들이 많아 편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 평소 예의가 높고 정중하며, 평소에 덕망을 많이 쌓아 주위에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등 지역민의 신망을 크게 얻은 의원이라는 여론이다.

또한, 미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겸양의 자세를 보이며, 평소 예의를 지키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인을 배려하는 겸양의 자세가 타고난 자질로 인하여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평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사)지치분권포럼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임총괄본부장과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당에 대한 헌신도가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12대 전반기 전주에서 국주영은 의장이 선출돼 또다시 전주에서 의장이 선출돼 부의장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은 아직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없어 전망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자라탄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을 비교 평가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의장 선거는 40명의 도의원이 결정하는 소규모 선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의원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에게 표가 쏠리는 것은 의원도 인간인 이상 당연지사라 선거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돼



정읍시와 고창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16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정치 리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성소비자전문과 국가버너스연구원이 뽑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외식, △의정활동에서의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통해 평가했다.

이날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7인 중 1인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입법과 정책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경기침체의 악순환 속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어려운 환경 타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농어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복지 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특별히 인정 받았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어민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월세 임차인과 미취업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두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대중 도의원, 원광대 개교 78주년 기념 공로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박성태 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은 이날 "김대중 의원은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학 간 관·학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학의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대중 의원에게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의원은 "오늘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원광대학교가 지어 덕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대중 도의원은 원광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5·6대 익산시의회 의원과 10대와 12대 전북도의원으로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만호 기자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총력전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주재 전략회의 열어

매주 1~2회씩 쟁점사항 수시 점검 통해 설득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도청 회의실에서 '국가 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주요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관영 도사는 역대 최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부처 단계 대응 전략회의체를 구성했으며, 매주 1~2회씩 주요쟁점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전북도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한 사업에 대한 논리보강 방안, 지휘부가 직접 대응해야 할 핵심쟁점 사업 등 분류 작업을 펼쳤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는 부처

안 제출일인 이달 말일까지 실국장 부처 설명 활동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고 있으며, 핵심쟁점 사업은 지휘부에서 부처방문, 장 차관 전화 및 메시지 건의 등을 통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마지막 주간에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 국이 중앙부처 집중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치권 및 시 군과도 탄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기초를 다지는 해인 만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안 단계부터 전력을 다하자"며 "실 국장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부처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우원식(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의부장 후보로 선출된 뒤 축하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사실상 확정

민주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누르고 '이변' ... 민주당 뒤편 부의장 후보에 4선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6선 추미애 의원과 우 의원 간 2차 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 의원은 총 169표 중 과반을 득표해 추 의원을 앞질렀다.

이는 추 의원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 당초 예상은 갠 결과다. 추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주말 친명계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 이른바 '명심(이재명 의중)'이 추 의원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의원을 향한 의원들의 표포가 예상됐으나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으나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점도 이변이다. 우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앞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또 "중립은 물가치가 아니다"라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권리를 향상시켜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국회의장이 의정단체에서 만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171명 여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회에서 국민의 바른 뜻, 원하는 뜻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를 맺었다. /뉴시스

민주당 뒤편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4선 남인순·4선 민홍철 의원과의 3차 대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투표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민주당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국회의장이 민심과 우리 담성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첫 번째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속으로 호민관처럼 곳곳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어려움 해소 위해 뛰는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며 "3년 후 집권할 민주당을 위해 어려운 곳에 가서 당원들과 지역 운영위원장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마치면서 민주당은 본격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협상 방침을 세웠다. /이만호 기자

"동계 종목의 생활체육화 전북만의 발전방안 마련을"

윤정훈 도의원, 전북체육회 등 방문 현안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무주, 더불어민주당)도 의회 원내대표) 의원은 16일, 전북체육회 등 도내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정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의 합심 단결을 주문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계 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동계스포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은 "2021년 10월 28일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긴급돌봄 수요 대응과 종사자 교육 등 민간의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북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전북자치도의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민, 주민의 편의와 복지, 일자리와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도정사업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